October 16, 2009 Vol.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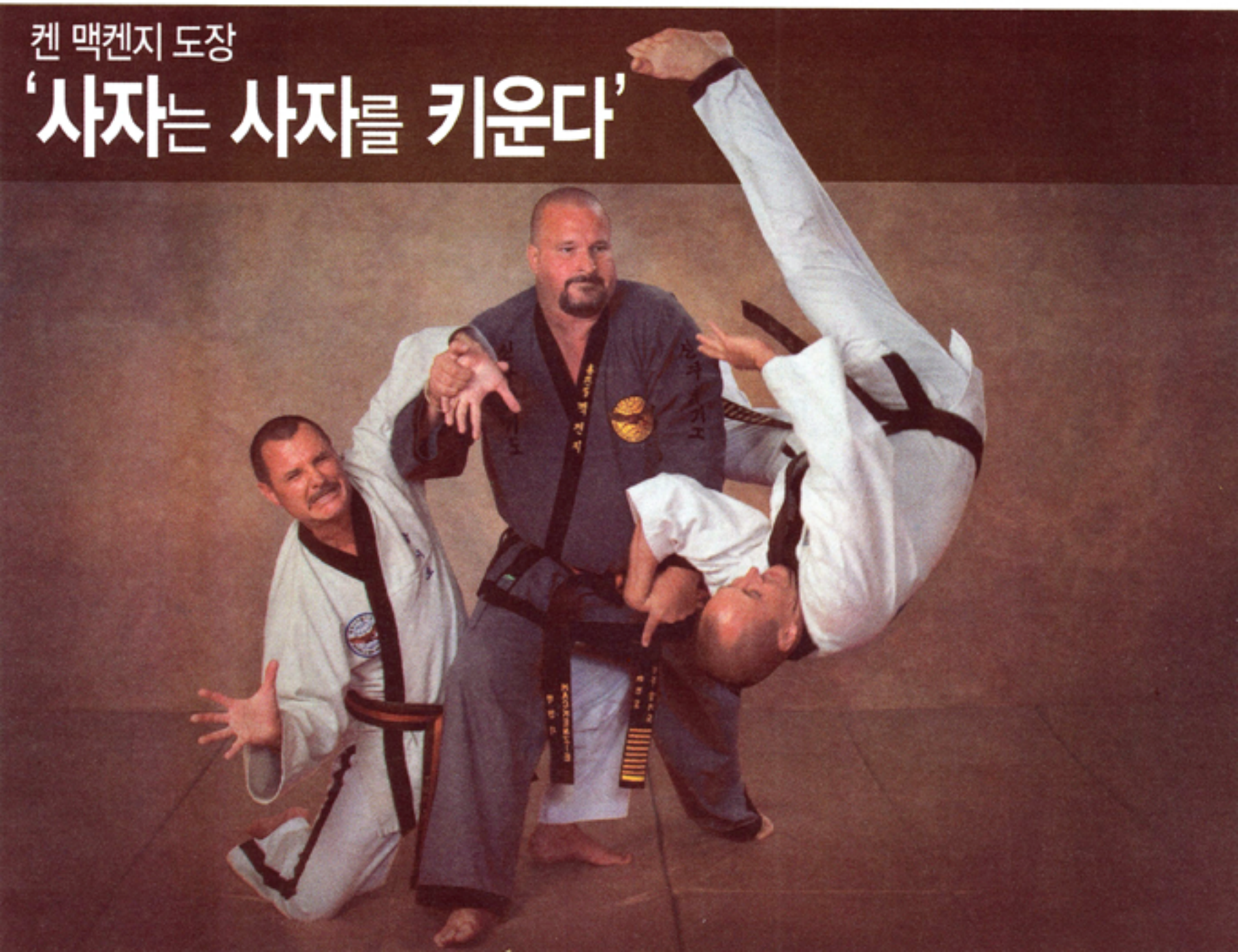
NEWS KOREA

FRIDAY

T.215-635-2300 F.215-635-3122 newskoreausa@gmail.com 613W. Cheltenham Ave. #206 Elkins Park, PA 19027

켄 맥켄지 도장

'사자는 사자를 키운다'



맥켄지도장 켄 맥켄지

'사자는 사자를 키운다'

무도는 인류의 흔들리지 않는 희망

정신적 스승인 지한재 도주와 함께.

"어린 시절 병에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 신세를 많이 졌고 4차례의 수술도 받았습니다. 한번은 뼈에 이상이 생겨 거의 왼쪽 발을 잃을 뻔도 했습니다. 이같은 병치레로 인해 아시아 무술을 시작하게 됐고 이후 태권도와 합기도는 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부뉴저지 보희, 체리힐, 퀸사켄, 애트코, 럼버턴등 5곳에서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케네스 맥켄지 사범은 단순한 뉴저지지역 사범을 넘어서 전세계를 오가며 각종 태권도 합기도대회 우승자로써, 때로는 주최자나 심판장으로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세계적인 스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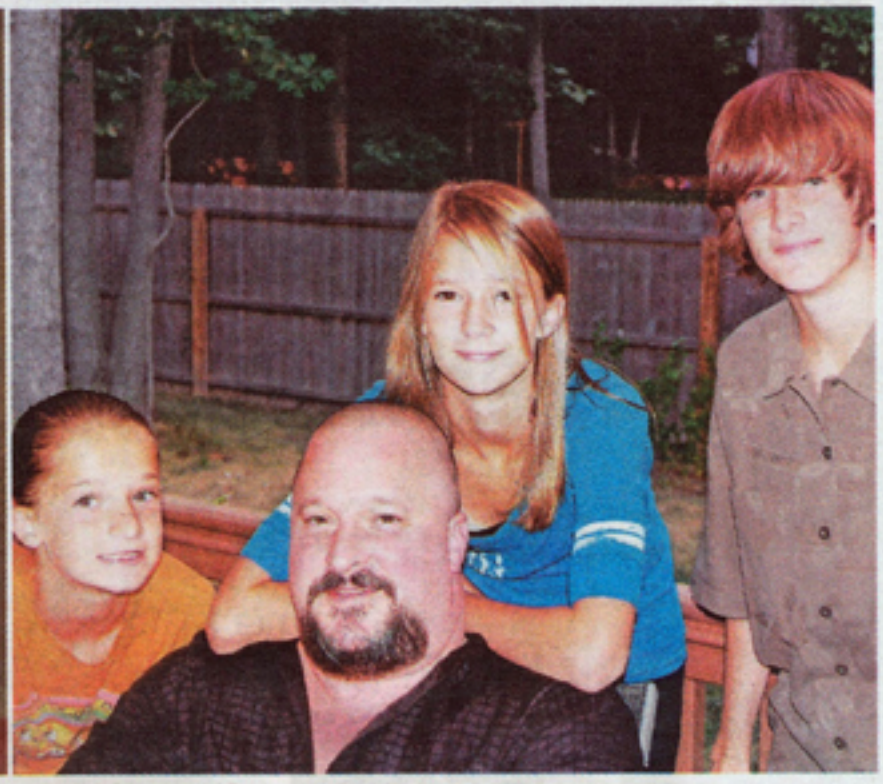
현재 세계 신무합기도연맹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케네스사범은 합기도 국제공인 9단으로 월드합기도 챔피온을 3번씩이나 지낸 강자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약관 19세의 나이부터 자신의 도장을 운영한 지도자로서의 오랜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83년 12월 YMCA내에 최초로 아이들을 위한 태권도합기도 도장을 열었습니다. 뉴저지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 최초로 아이들만을 위한 태권도 합기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은 26년이 흘러 3살서부터 85세까지 1천여명의 수련생들이 제 도장에서 수련하고 있습니다. 1백75명의 블랙벨트 제자가 현재 수련중에 있고 8명의 풀타임 스태프와 수십명의 파트타임 스태프가 저와 함께 도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 도장 출신중에 월드합기도 챔피온이 나오기도 했구요."

케네스 맥켄지 사범이 도장운영에 성공하며 점차 확대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특화하며 효율적인 수련을 위해 연구를 계속했다는 점 때문이다.

그는 또 진정한 무도인으로서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YMCA, 적십자, 빅브라더즈빅시스터즈등 각종 청소년프로그램에 시간을 쪼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맥켄지사범은 "무도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나가면서 자신의 실력을 향상하는 도전심이 근본"



맥켄지사범의 아들 더스틴, 딸 하이디와 태비 모두 태권도 블랙벨트이다.

이라며 "이같은 도전심은 육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에 더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이같은 정신력의 강화는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맥켄지 사범의 무도인 생활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세계 신무합기도 연맹의 창시자인 지한재 도주를 만난 일이다. 85년 뉴욕에서 열린 세계 합기도 세미나에 참석한 맥켄지 사범은 지한재 도주를 만나며 '체구에 관계없이 인간의 기에서 뿜는 강한 힘' 을 체험했다. 이후 지한재 도주를 아버지처럼 따르며 각종 태권도합기도 세미나에 함께 다니며 많은 것을 사사받는다.

지한재 도주는 한국 청와대 경호팀 사범으로 16년간을 재직하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을 모두 지척에서 모신 경험을 갖고 있다. 정치적 이유로 84년 미국행을 택했고 85년 맥켄지 사범을 만나 무도인으로써 부자같은 정을 나누게 된다.

이후 90년대 중반 뉴저지로 오게 되면서 맥켄지 사범과의 인연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맥켄지 사범과 정신적 스승인 지한재도주는 세계 신무합기도 연맹의 확대를 위해 아시아, 유럽, 남미등 60여개국을 함께 다니며 시범과 강연을 해오고 있으며 미국내 50개주중 45개 주에서 초청을 받아 합기도 태권도 보급을 현재도 하고 있다.

맥켄지 사범은 지한재 도주로부터 들은 '사자는 사자를 키우고 토끼는 토끼를 키운다' 는 말을 항상 가슴속에 새기며 강인한 사자를 더욱 많이 키우기 위해 일생을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무도정신은 인류가 질병, 전쟁, 빈곤, 기아등 어두운 걱정거리를 이겨낼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 기둥이 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제 인생이 무도를 전파하는 일이라는 점을 저는 너무나 행운스럽게 생각합니다."

(맥켄지 도장 : 856-346-1111)

60여개국을 돌며 시범경기 통해 동양무술 전파, 청소년들에게 무술연마 통해 자신감과 책임감